

술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2>

근본 오계의 마지막 다섯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정신적인 나태를 유발하는 것, 즉 취하게 하는 것을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음주'는 보통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술을 마시는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해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술이든 약물이든 마약이든 환각의 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금하는 계이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여 지혜를 흐리게 하는 음료이며 중독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술은 술신적인 나태를 유발하는 것, 즉 취하게 하는 것을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음주'는 보통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술을 마시는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해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술이든 약물이든 마약이든 환각의 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금하는 계이다.

오계상경-16

음주의 해악에 대해서 <수타니파타> '담미까경'에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술을 마시지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재가자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취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고, 또한 남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며 어둡게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즐기고 있다."

술과 약물은 불화, 다름, 가정 내 폭행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악물 중독 때문에 일어나며, 이에 따른 사회 문제들도 생겨나게 된다. 경전에 있는 습관적인 음주나 약물 복용이 자제력을 잃게 하고 지혜를 흐리게 하여 건강을 해치고 나쁜 경관을 얻게 한다고 쓰여져 있다. 재가자의 윤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 경전인 <교계시갈라경(선경경)>에 술을 마시는 허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싱갈라! 술은 계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술과 같은 것에 빠져 지내면 다 음과 같은 여섯 가지 과오가 생긴다. 지금 당장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다툼이 찾아지며, 험하게 벌이리며, 악평을 듣게 되며, 벌거숭이가 되어 치부를 드러내게 되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오는 술이나 계율의 원인이 되는 것에

아 먹는 것을 보고 몰래 잡아먹으니, 다시 도둑질과 살생 두 가지 계를 범하였다. 이때 이웃집 여인이 닭을 찾아 왔는데 취한 김에 강제로 강간을 하니 다시 음계를 범하였다. 이웃집에서 관에 고발하였는데 바른대로 진술하지 않아서 망어계를 범하게 되었다. 평소 성품이 어질고 계를 잘 지키던 우바새가 술을 마심으로 해서 결국 나머지 다른 계도

알콜 중독되면 몸과 마음 황폐

과음은 계율·비행 등 불러

빠져 지낼 때에 생기는 것이다." <비바사론>에 전해지는 우화를 보자. 옛날에 한 우바새가 있었는데, 성품이 어질고 오계를 받아 잘 지켜 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바새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 집안 사람들은 모임에 나가고 없었다. 우바새는 갈증이 나서 그곳에 남아 놓은 술을 들인 줄 알고 마셨는데 결국 불음주계를 범하고 말았다. 이때 이웃집 닭이 그 집에 들어와 곡식을 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술이든 약물이든 그것을 섭취하면 열정을 부추겨 마음 상태를 흐트러뜨리고,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술과 약물에 중독이 되면 심신이 모두 황폐하게 된다. 생리적인 측면에서도 음주는 소량으로도 상인의 뇌세포에 치유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많은 양일 경우 신체의 주요 기관을 망가뜨리며, 약물 남용은 이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 사건들이나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근본적으로 술이나 약물 남용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술이나 약물이 얼마나 해로운지, 또한 사회생활에서 부딪치게 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성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납득시키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술이나 약물 등의 탓에 걸려드는 것은 성품이 나약한 탓이기도 하지만, 불교는 술이나 약물의 해독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던 까닭에 기본 계율 중에 불음주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에도비구니경>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술은 독약, 독수, 독기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부수고 망령된 행위로 재앙에 이르러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불음주계는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계율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처럼 경계하고 강조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계이기도 하다. 한번 시작한 술은 과음이 되고 과음이 되면 모든 계율을 깨뜨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인총림 울원장>

"마음 맑고 밝으면 윤회 벗어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이르셨으니 "수행자가 마음을 스스로 열면 얽아서 생각만 하여도 곧 천상의 일을 볼 것이며, 인간의 일을 다 알 것이며, 또한 지옥이나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치 맑은 물 속에 있는 모래와 돌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물이 맑아야 물 속의 일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니라. 물이 흐리면 물의 깊고 얕음이나 바닥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니 이는 마음이 더럽고 흐리기 때문이니라"고 <불반니원경> 권상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고, 욕심과 성질을 절제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상처를 만들고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요, 그 실체가 없어 허망한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마음을 추스르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신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유의하고 큰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가 막힘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어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막바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인간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성취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이 여러 경전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 어리석음이란 이름의 안개가 짙게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뒤덮여 있는 마음은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행위를 발생시켜서 인생을 어렵게 하고 실재를 거둬들여 버리고 따라서 불안과 불행의 고통에 빠지는 것이지요.

법회중계

인천 보리회

(2000년 6월 11일)



원광스님 <심장불교 문서포교원장>

인과응보 원리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 내지말며 절제해야 불교인 삶

그러므로 사람이 생활의 경안과 행복을 진정으로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고 어둡게 덮여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실천하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리석음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남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일도, 인간세상의 일도, 심지어 지옥의 일까지도 우리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열린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이며,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모든 것을 받아들여 소화시키고 거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은 평등의 원리를 알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요, 맑고 깨끗한 마음은 티가 없고 미려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되는 일이 없고 의심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만사가 다 내 마음 안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만과 불안이 사라져서 행복과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인의 삶입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30개 불교단체·5천여 불자 활동

세계의 불교학 <22> 스웨덴

스웨덴 불교학은 60년대를 기점으로 스웨덴의 명문 스톡홀름 대학교 웁살라 대학에서 학문적 접근이 활발해졌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연구 성과물과 남방계 스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서서히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현재 스웨덴에는 30여 개의 불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5천여 명의 불교 신자들이 이들 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불교신자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며, 남녀 성별도 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있어, 학교 교육이나 고교졸업시험에서도 종교학 과목에 불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불교 관계 서적이나 잡지 출판물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기사에 능통한 스웨덴인이 많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주요 불교 단체는 '티베트 학교 문화회', '불교협회', '티베트 불교회' 등이다. 12년 전 스톡홀름에 설립된 티베트학교 문화회는 10여 개의 지방 지회를 두고 있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불교 단체다. 여기에는 8백여 명의 회

원들이 신행에 열중하고 있는데, 현재 티베트 어린이들을 위한 두 번째 직업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과 티베트 간의 민간 차원의 교류 관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불교협회'는 스웨덴인들 사이에 불교가 어느 정도 파급되어

'티베트 불교회'는 스웨덴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외페보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10여 년 전에 설립된 이 단체는 현재 하겐포스(Susanne Hagenfors)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회원의 직업과 연령층은 대학생부터 60대 중반의 전직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70년대 이후 티베트 불교 연구 주류 젊은층 '열린 사상 좋다' 불교에 끌려

는자를 가능하게 하는 단체다. 불교협회는 정기 참선 및 채식 강좌를 개설해 놓았는데, 일반인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이 참선과 채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스웨덴 불자들의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생활로 그것을 적극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티베트 불교회'는 외페보리 지역의 젊은이들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리 공부와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강생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화번호후에 실려 있는 티베트 불교회를 보고 문의한 후 곧바로 법회에 참석할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다. 외페보리 지역에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스웨덴 불자들.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경향은 70년대 들어서면서 스웨덴에서 불기 시작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스웨덴의 사회학자들은 첫째는 티베트 스님과 법사의 유능함과 훌륭한 때문이며, 둘째는 티베트 불교 스님들의 유연한 사고와 수행이 상좌부 불교와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티베트 불교문화와 스웨덴의 전통 문화의 유사성을 갖고 있고, 넷째는 다양한 종교가 스웨덴인들에게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학자 켈 크리스틴 박사는 "젊은 세대들은 불교는 물론 동양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불교철학은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한 기존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합리적인 서구 사고방식에 물두한 청소년들에게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스웨덴의 젊은이들이 기존의 서양 지식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불교로 눈길을 돌렸고, 이후 스웨덴 불교는 서서히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교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교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심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에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기도를해보시기를!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 I.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자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 II.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